

광주 다문화 산모에 친정 국가 돌보미 지원한다

시, 연말까지 하루 5시간씩 70시간...산후조리 정보 제공 16일까지 결혼이주·고려인 여성 대상 돌보미 신규 모집

광주시가 출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국가 출신 산모돌보미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 국가 출신 산모돌보미를 파견해 산후조리 정보 제공과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고려인 산모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돌봄은 가정당 1일 5시간 이내로 총 70시간을 무

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산모돌보미는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 보조,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와 정결 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감염 예방·관리 등 육아에 필요한 각종 도움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산모의 친정국가 출신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응대 등을 비롯한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 등의

육체적·정신적 지원을 병행한다.

광주에서는 현재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6개국 출신 25명의 산모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산모돌보미 활동 대상자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한국 거주 3년 이상이거나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이나 고려인 여성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능력을 갖추면 된다.

접수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20일 최종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 이후 35시간의 양성교육을 수

료하면 산모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북구가족센터(062-363-29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낯선 환경에서 출산해 정서적 지지와 돌봄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산후 돌봄을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건전한 아동 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부모가 편한 출생·양육·돌봄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현장에서 폭염 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시-의·약사회, 확산세 코로나 선제 대응 치료제 현황 모니터링...시 “손씻기·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

광주시가 자치구 보건소, 약사회, 의사회 등과 협력해 제6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자치구 보건소·약사회·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보건소·의료기관 간 채팅방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실시간 재고 현황 등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시는 또 광주약사회와 협업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목록을 공유하고, 약국 간 소통으로 조제 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줄이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

19 환자 급증세 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4주간 200명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6월 4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명이었으나 7월 5주차에는 19명으로 4.8배 급증했다. 비율로는 63.2%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질환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치료제가 남발되지 않고,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손욱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실내 환기를 물론 호흡기감염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캠스필드 갈 때 광주투어버스 이용하세요

시, 경기 종료 뒤 순환노선도 운행...김치축제장·DJ센터 등 확대 추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용해 호출하면 찾아오는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노선에 추가했다. 앞으로 김치축제장, 서창역새축제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새로운 정류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이용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앱으로 호출하면 찾아오는 ‘광주투어버스’ 정류장에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추가하고, KIA타이거즈 구단과 협업해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운행을 시작한 광주투어버스는 AI기술을 활용해 이용객의 다양한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고,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용객은 앱으로 승차할 정류장에서 탑승인원을 선택하고 투어버스를 호출한 뒤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정류장은 광주 주요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오거리,

사직전망대,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 터미널 등이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도 추가됐다.

특히 KIA 홈경기가 종료되는 밤 9시 이후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유스퀘어터미널-농성역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을 운행해 광주를 찾는 원정 관람객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야구장 인근 교통 혼잡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환형 노선 운행 기간은 이달 중 기아챔피언스필드 홈경기가 있는 8-11일, 20-22일, 27-29일이며, 평일은 밤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주말은 오후 8시 50분부터 밤 10시 20분까지다. 다만, 운행시간은 경기 일정과 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만큼 광주투어버스 앱 등을 통해 세부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광주관광공사와 기아타이거즈는 공식 SNS 등을 통해 광주투어버스 탑승과 야구경기 관람을 함께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딸기·콩 등 재배기술교육

광주농기센터, 10월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3일부터 딸기, 콩, 블루베리, 양봉, 시설과채류 등 5개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영농시기에 맞춰 작목별로 현장 중심의 핵심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한 작목당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해당 품목에 관심 있는 광주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술의 스마트화 등 격변하는 농업현장의 적용 기술을 적기에 제공해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학관,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9~11월 시민·어린이강좌 운영...13일부터 선착순 접수

광주문학관은 “13일부터 ‘시 창작과 콘서트’, ‘그림책과 공예’, ‘어린이 문학학교’ 등 올 하반기 정기프로그램 6개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문학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 창작과 콘서트 ▲그림책과 공예 ▲시를 노래하라 3개 강좌를 운영한다.

‘시 창작과 콘서트’는 시를 좋아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나의 삶에 대한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그림책과 공예’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독후 활동으로 관련 공예 작품을 만든다. 또 ‘시를 노래하라’는 시를 낭송하기 위한 호흡법과 무대 매너를 배우고 실제 발표회를 진행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이랑 함께 놀아요 ▲어린이 문학학교 ▲나만의 책만들기 3개 강좌를 운영한다.

‘책이랑 함께 놀아요’는 초등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 도서를 읽고 전통놀이를 함께 한다. ‘어린이 문학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소 소개, 편지, 일기, 동시 등 글쓰기를 배운다.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만의 책만들기’는 차시별로 표현한 글과 그림을 엮어 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수강생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문학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gilm>)에서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유정아 광주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연령별로 맞춤형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해 누구나 문학을 감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하는 참여형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